

# 격려사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자연과 도심이 친화하고 지역 주민의 간절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결실을 이루는,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에 우선하여 송광실버하우스 개원을 직접 돌아보고 격려하고자 한 것은, 송광실버하우스가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의 현장이며, 효의 사회적 실행현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고령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작은 위로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살아오신 분들의 일생은 고난과 역경을 뚫어내고 설명하기는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험벗고 굶주리면서도 자식을 가르치고 키워 83%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이라는, 교육입국을 이룩한 헌신적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식민시대와 전쟁, 빈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국가로 성장시킨 산업의 역군이자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OECD 최상위 노인빈곤 국가, 노인 자살율 세계1위라는 불명예가 지금이 어르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어르신들에게 위안이 되고 노후를 편히 쉴 수 있는 일이라면 손발을 벗고 나서야 되겠다는 평소의 신념이 오늘 송광실버하우스 개원의 의미와 너무도 잘 부합하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 있는 역사를 창조한 관계자 여러분을 격려하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지방의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종교간 형평성 유지와 균형발전을 위해,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이 순천시에 노인요양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흔쾌히 지원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전라남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다한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 현고스님과 교구본사 영조스님의 노고에 종도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고의 시설이 탄생하도록 설계한 이영문 설계사와 시공사 USI 김진호 회장님, 그리고 공사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교는 대자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불교계가 자비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세상이 인정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충분히 점검하고 받아들여, 향후 조계종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전국 40여 불교복지법인과 연대하여 불교사회복지가 21세기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는 중생으로 인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이치라면, 중생이 없다면 모든 보살은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불교의 가르침도 흔적없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기관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서는 부처님이 복덕을 닦을 때 몸과 목숨을 내려 놓았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부처님은 수 없이 많은 세월 동안, 머리와 눈과 손발 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해아릴 수 없는 많은 보시를 행했다는 점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오셔서 법어를 내려주신 수덕사 방장 설정 큰스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내면서도 자연 친화적이며 이곳의 문화와 지역 주민의 요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의미있는 불사를 일궈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광실버하우스가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기2555년 6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